3자의 유기체가 피워내야 할 대학민주화

기획특집 — 대학교육운동과 대학노조의 역할

직원, 교수, 학생의 각 주체가 동등한 위치와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대학 개혁과 민주화에 큰 기틀이 될 것이다

대학교육운동은 대학의 자유화·민주화를 목표 노동·교육운동을 책임지는 노조의 위상 절실 직원·교수·학생의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대학교육운동은 대학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부응한 대학구조의 실현과 대학 및 교육에 관련된 사회적 조건을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대학구성 제주체 단위의 개별적 혹은 공동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의 발전이며 이는 곧 대학의 자주화 민주화라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은 그 본래적 역할인 학문 사상의 자유를 기초로 한 연구와 교수, 학습 그리고 행정활동으로 국가 동량이 되는 인재를 바르게 양성하고 또한 대학의 사회적 역할인 사회모순의 해결책 제시와 그 모형을 실험하는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대학발전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권력의 교육통제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직원들의 신분보장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재단, 학교당국 등 학원내부의 부패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대학현실은 대학개혁과 진정한 대학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의 비리와 모순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교육운동의 당면한 방향과 과제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1. 대학노조와 교육운동으로서의 역할

가. 대학노조의 교육운동적 성격과 자기혁신

대학노조는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대학의 행정주체 조직이다. 대학의 노동조합은 노동운동과 교육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운동 차원의 활동이 중심이 되어 있고 교육운동적인 활동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점은 대학노조가 경제투쟁 중심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보다 폭넓은 사회구조적인 역할면에서는 소극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교수처럼 교단에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행정만을 담당한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교육자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를 주저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가치나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 기반을 둔 대학운영과 역할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이 점은 직원채용 선발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친인척 등 혈연관계를 비롯하여 비본질적인 요인이 우선되어 직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직원의 교육자적 인품과 가치관은 뒷전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직원의 채용 선발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에 입각한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직원의 자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부정과 비리가 행정직원들에 의해 양산되고 유지되는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학노조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없이 노조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대학노조가 사회적, 교육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 교육적 대학행정의 실천

대학에서 행정은 학교운영의 핵심이다.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 전과정과 대학발전을 제도적으로 마무리 짓는 활동이 바로 행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활동 전과정에서 타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일은 대학행정을 질적으로 높이는 것이며 대학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편의주의와 기능적인 활동을 탈피하고 교육을 행정의 중심에 두는 교육적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또한 행정활동이 교수, 학습활동에 비해 낮은 차원의 것이라든가 종속적인 것이다라는 외식도 버려야 한다.

대학운영의 재정 등 대학의 모든 곳을 상세히 알고 있는 직원들은 이제 전문성의 제고와 함께 민주행정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다. 대학민주화를 위한 방안과 정책의 수립 실천

대학 사회의 현실을 볼 때 총장선출권을 비롯 대학운영의 결정적인 권한을 유지, 확대하려는 교수사회의 권위주의적 보수성과 전통적으로 강력한 집단인 학생운동의 독주가 직원과 대학노조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대학내에서 노조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절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직원, 교수, 학생의 각 주체가 동등한 위치와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대학 개혁과 민주화에 큰 기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학원주체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에는 교수와 학생영역을 통합하는 기틀을 가지는 행정영역의 직원들이 교수, 학생들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노조는 전국적 조직인 연맹을 중심으로 대학민주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하여야 한다. 연맹의 정책을 바탕으로 단위노조와 모든 조합원들은 교육자적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대학내부의 비교육적 형태를 척결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제반 제도와 구조를 정화하여야 한다.

2. 대학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학교육운동적 과제

가. 대학노조, 교원단체(교수협의회, 강사노조 등), 학생단체(총학생회, 대학원학생회) 등 대학교육운동 제단체를 중심으로 대학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기구나 대학개혁운동본부와 같은 제도 설치가 시급하다. 이러한 기구에서 대학 비리, 부패의 전모가 밝혀지고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재단 및 재단이사진, 실질적 학교최고운영자(설립자), 총학장, 주요 보직자 등의 재산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운영에 있어서 재단이나 개인의 비리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재산공개는 매우 중요하다.

다. 대학의 행정과 재정을 대학구성원 전체와 국민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대학운영에 관한 일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공개 실시로 해당 자료들이는 누구나 자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민주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대학에서 공개행정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직원, 학생, 교수의 3자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대학내 감사, 사정기구를 설치하고 활동을 강화하여 대학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를 통해 대학의 건강한 발전과 개혁을 도모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마. 총장 선출 등 학교운영 전반에 직원, 교수, 학생 등 3자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민주적 대학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의 과제들을 성취해 나가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학내 기득권층의 반발은 필연적일 것이며 대학노조조차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대학직원들은 일부의 비리인사들 때문에 가질 수도 있는 공범자적 의식과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정노력이 선언적으로 그칠지 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던 당시 대학노동자들의 비장하고 새로운 각오로 돌아가 대학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대학노조와 직원들이 솔선해야 할 것이다. 대학노조연맹 뿐만 아니라 단위노조에서도 대학개혁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담기구를 만들어 생활에서 작은 일 하나부터 차근차근 실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의 비리부정 앞에 항상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직원들의 대학개혁선언과 의식개혁운동은 결국 교수, 학생들에게 까지 이운동에 합류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학을 민주적 구조로 정착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개혁운동은 타업종 노동자들에게도 자신의 일터와 생활 현장에서 부패구조를 제거하는 일에 모범이 되고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 우리 노동자가 국민대중의 편에서 사회변혁의 주역으로 역할을 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대학의 부패구조 척결이라는 당면한 과제에 대학노조가 얼마나 실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학발전이 가늠될 수 있을 것이다. 재단, 학교당국 등 대학관리자들의 폐쇄적인 대학운영에 맞서 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원들의 대학노조가 변화하고 교육운동의 실천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대학노조연맹을 중심으로 대학의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체 단위노조가 이를 조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행정의 민주화와 함께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과 통제를 배제할 수 있는 행정의 자율성 실현이라는 과제를 쟁취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변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대학노조가 자기운동을 정립해 나가리라고 전망한다. 내부에서 이러한 요구가 일어나고 있고 대학개혁운동에 이제 본격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요청이 안팎에서 있기 때문이며 그동안 대학노조연맹을 중심으로 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대학노조가 대학교육운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소위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노동자들의 사회역사적 책임에 입각한 노조활동은 우리사회 전체 노동자들에게 파급, 확산되는 동시에 노동운동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김 종 원

〈본교 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장 취재 — 노동자 고통전담 강요말라!

지난 1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는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열렸다.

이날 모인 4만의 인파는 "부쟁으로 일어서는 노동자계급!, 투쟁속에 하나되는 조직건설!"이란 구호를 내걸고 6공비리의 완전청산과 금융실명제 실시를 주장했다.

또한 1천 2백만원가량의 성금이 즉석에서 모금돼 굳건한 투쟁의 의지를 엿볼수 있었으며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고용보장제도'의 정당성을 알렸다.

한편 집회가 끝나고 "노동자 고통전담, 임금동결 철회하라."란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까지 평화행진을 가졌다.

〈모상용 記者〉

인터뷰 "복직은 정당성 회복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필요"

— 장백기 전 노조위원장을 만나

3월6일 복권조처된 해고노동자 가운데 본교 2,3대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장백기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복적을 위해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그를 만나보았다.

—먼저 복권된 소감은

▲복권될 당시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출소된지 2년이 훨씬 넘었고 그 동안 나름대로 삶을 꾸려가고 있었기 때문일런지. 다만 주위의 다른 노동자중에서 나만 복권조처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다.

—지난 3월8일 있었던 노조총회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동지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손수 복권장까지 주어서 순간 감동했다.

—구속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89년 나는 학생처에서 근무했는데 주로 운동권 학생들 담당이었다. 학생처에서 근무하다가 학생신상카드가 정보기관에 의해 사찰의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모든 신상카드를 불질렀다. 며칠 후에 불법구금되었고 그사이 가택수사가 있었다. 수사결과 그 당시 금서였던 몇 권의 책이 발견되었고 죄명은 국가보안법의 이적물 불법소지죄였다. 죄명은 국보법 위반이었지만 신상카드를 소각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다. 학생을 올바로 지도해야하는 직원이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피해를 입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

—수감생활은 어떠했나

▲학생처 근무당시 구속되었던 학생들을 찾아가 면회도 하고 여러가지 일을 겪었는데 서로 입장이 바뀌어 학생들이 나를 찾아와 큰 도움이 되었다.

—출소 이후 지금까지의 생활은 어떠한가

▲지리산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다. 경희대출신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는 출판사이다. '사랑아, 아/ 사람아'등의 책을 펴냈는데 출판일이란게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좋은 책을 펴 낼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뜻대로 잘 안된다.

—노조에서 복적투쟁을 전개한다고 들었는데

▲복직투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고노동자인 나의 복직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측제 모두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해의 차원이 아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 이식은 노조내에서부터 견고하게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그를 위해 조합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해 나갈 것이다.

—본교에서는 몇달전 동의서 파문으로 학교측과 노조측간에 갈등을 빚은 일이 있다. 현재 우리학교 노조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현재 우리학교 노조의 가입자도 거의 관리직이고 사무직은 소수인 것으로 안다. 노조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지만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현재 노조의 그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 당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노조원들의 자발적인 인식에 기초한 활동보다는 혼자의 판단에 기초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물론 노조원들의 확고한 신뢰가 있었지만 장기적인 노조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조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생활 설계에 대해서

▲일단 노조원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대화를 해 나가겠다. 복직이 되면 출판사일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정미경 記者〉

는 이제, 해외거래선의 개발·미수금국 입성·수출시장 등 1967년 창업 이후 추구해온 시장개척 차원의 활동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내 기업중 가장 넓은 대국 86개 지사망과 27개국 48개 현지법인을 축으로 세계 주요 지역에서 전략사업의 현지화를 하는 「세계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써 대우는 악화된 오늘의 국내외 경영환경을 어느 보다도 효율적으로 극복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 두터운 세계장벽을 헤치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경우 이미, 미국·프랑스·영국 등지에서 반도체 현자렌지·VCR·컬러TV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경제권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한 상태이며, 가격경쟁력 와 시장확대 차원에서 중국 및 베트남·미얀마 등의 이아, 동구권국가, 중남미 등지로 생산공장을 이전, 지역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는 현지 생산 및 독립경영체제로 국제경쟁력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자동차 커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군산 종합자동차공장의 첫 은 대우는, 우즈베크공화국에 새워질 18만대 규모의 국민자공장은 포함한 중국·베트남·이란·남미 에 해외 자동차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세계 굴지의 차메이커로 우뚝 서게 됩니다.

는 이밖에도, 난공불락의 시장으로 여겨졌던 일본 시장을 헤치고 들어가 대규모 트윈빌딩인 '이사이 교역센터'를 건설중에 있으며, 라비아 대우로공사 이후 의 해외건설공사인 총공사비 10억불 규모의 파키스탄 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등 대우는 해외건설부문에서 날 또 다른 신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 벨지움의 CMB사를 인수하여 '90년에 유로대우사로 한 대우중공업은 이미 우리의 기술로 유럽 현지에서 중장비를 생산,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에선 유럽의 기업으로 —

아에선 아시아의 기업으로 —

대우는, 앞으로도 脫국경화 기업경영전략인 경영」아래, 까다로운 규제장벽을 극복하는 전략사업의 화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해외 현지판매의 확대를 통한 국익창출에 앞장섬으로써 침체된 우리경제의 활로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넘는다!

기술을 가진 나라만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오늘날 — 대우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정성한다'는 가치 아래 탄탄한 기술자립의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産·學·硏공동으로 정보통신·자동차·전력에너지·생산기술 등 4대 핵심기술을 연구하게 될 고등기술연구원, '81년 이후 500여명에 이르는 지술인력의 해외연수, 기초과학 집중투자 및 육성, 노벨상의 꿈을 실현할 대우 기술상·발명왕상 제정, 대우 기술위원회 발족 등이 기술대우의 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입니다.

특히 총5천억원을 들여 용인에 건립하는 고등기술연구원은, 일본 SRP(Soft Research Park)내의 대우연구센터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대학의 기술석학 및 R&D센터, 생산현장의 상품기술부문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완벽한 기술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1등 상품을 탄생시키는 우리기술의 메카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제 대우는, 기술자립 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첨대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한 독자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함으로써 세계화의 기술경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우리기술로 선진 기술장벽을 넘어 세계무대에 우뚝 서는 「세계경영」의 대역사를 펼쳐가겠습니다.

세계의 자본시장을 뚫는다!

뒷세와 규제가 심하기로 소문난 세계 금융시장의 메카, 유럽과 미국 —

대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금융부문의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제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대비한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옴과 동시에 우리자본의 세계화를 추구해왔습니다.

'91년 대우는 단독으로 린던 현지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금융시장의 본산인 뉴욕에도 현지법인을 개설함으로써 선진 자본시장의 핵심지역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90년 헝가리와 합작설립한 MHB-DAEWOO BANK는 해외금융투자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이 이세를 몰아 올해 2월에는 Magyer Daewoo Securieties를 설립하는 등 대우는 우리자본의 국제화를 어느 기업보다 앞서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비한 해외투자의 확대로부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세계 현지 금융시장의 공략에 이르기까지 — 대우는 앞으로도, 거대한 국제 자본시장을 현지에서 직접 뚫어가는 공격적인 「세계경영」전략으로 우리자본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해외의 자원을 우리의 에너지 자원으로!

대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실정을 감안, 세계 각국과 천연자원을 합작개발하는 형태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자원공급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마두라유전, 미얀마의 해상가스전, 캐나다 우라늄광산 개발을 비롯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야쿠츠 — 사하 공화국내의 가스전 개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야쿠츠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을 통과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수송될 예정인데, 얼마전 대우는 이 파이프라인의 북한통과 합의를 계기로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우는, 현지개발을 통한 해외자원의 적극적인 국내유치를 추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수입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고, 나아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세계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가자, 21세기 한민족 「세계경영」의 시대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긍정적 명제 아래 끊임없는 개척의 발길로 창조한 「대우神話」로부터 한민족 국제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세계경영」에 이르기까지 — 전세계 곳곳에서 땀으로 얼룩진 개척의 화신이 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는 대우의 해외대장정은 중단없는 한민족 도전의 발자취로 찬연히 빛날 것입니다.

이제 대우는,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창업 이래 줄곧 그랬던 것처럼 어떤 험난한 역경도 결코 굴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창조와 도전정신으로 다시 한번 우리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나아가, 세계촌에 대우의 역사(役事)는 끊없이 계속되며, 미래를 향한 대우의 역사(歷史)는 항상 시작이라는 진취적 행동철학으로 위대한 한민족 「세계경영」의 시대를 이 땅에 펼쳐가겠습니다.

광개토대왕 碑

만주 지안현 통고무에 있는 고구려 제19대 광개토대왕의 능비. 고구려의 건국내력, 광개토대왕의 대외 정복사업 등이 기록되어 있다.

대우가 있습니다.